

#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더 중요

현재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기에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더 중요한 때이다.

##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기에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더 중요한 때이다.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에서 함께 하는 우리는 '신 인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보건 의료 관련 정보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참여와 개방을 필두로 내세우는 Web 2.0 시대의 정보량과 전개 속도는 빛의 속도 그 이상임을 체험하고 있다.

근거 없이 범람하는 건강정보는 일반 대중이 질병과 건강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고, 때로는 보건 의료 전문가의 조언보다 더 맹신하는 경우도 있다.

## 2 인터넷상 건강정보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Web 2.0을 대표하는 구글, 위키피디아, 네이버 등 검색과 온라인 매체(신문, 방송 등), 카페 및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문가 이상으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정보를 제대로 보는 법은 제공된 정보의 출처의 명확한 표기, 출처의 공신력(정부/기관 발표 자료, 논문, 저널, 교재, 기사 등), 상업성을 가장한 광고성 정보는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기관(병의원, 보건소, 검진센터 등)을 내원하여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

의료계에서는 '근거 중심 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이 주요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EBM은 의료



범지형 테레사  
인터케어 건강검진센터  
마케팅 실장



전문가들이 일상 현장에서 과학, 공학, 및 의학 문헌, 위험-이익 분석 및 무작위 대조시험의 메타분석 같은 통계학을 이용하여 '현재 최상의 근거를 성실하고, 명확하고,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이상(理想)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정보·건강정보의 프로슈머(생비자: 생산자이자 소비자)라 할 수 있다. 첫째, 생산자 관점에서는 EBM에 근거하여 의료정보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 근거 문헌을 확보하려면 개인이나 기관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의료정보를 제공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권'이다. 교재 및 논문에서 부분이 아닌 일정 부분을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참여와 개방을 필두로 하는 Web 2.0 시대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하여 미국 등의 유명 의과 대학을 필두로 다국적 거대 출판사에 대항하여 모든 것을 공유하는 논문 제공 사이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평가'의 문제일 것이다. 2003년부터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대책 과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추진 중인데, 2009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 건강지식향상위원회가 제시하는 대중매체(TV, 신문 등) 건강정보 평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http://www.kma.org/contents/position/position05.html>

**첫째, 과학적 건전성이 있을 것** 확고히 정립된 정보나 임상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정보와 근거가 약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전성이 떨어지는 정보, 의학적인 오류임이 밝혀진 정보를 구별한다.

**둘째, 유해성 여부** 건강에 대한 유해한 정보 또는 불필요한 건강 행태나 낭비를 초래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유익성 여부** 국민 건강에 유익한지, 무해무익한지 해로울 소지가 있는지 판단한다.

**넷째, 정보의 누락 및 사실의 과장 여부** 필수적인 정보의 누락이 있거나(예를 들면, 다른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치료법을 광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의학적 사실이 과장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 3 마치며

건강정보는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에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신뢰하기 어려운 건강정보의 제공 및 활용, 건강정보의 오용 등은 개인과 사회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적절한 평가 기준에 의거한 평가 시스템과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올바른 건강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유도하고 건강정보 활용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평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의료 전문가나 소비자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